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부활의 기쁜 소식 온 세상에 전해 이 땅이 회복되길

4월 2일, 저녁8시 <성금요 성찬예배> 온라인으로도 참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26)

모든 기독교인이 마음을 모아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다. 부활절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만방에 선포되는 날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진 날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이들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부활의 새싹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주시길 간절히 기도할 때이다.

이웃의 아픔과 함께하는 부활절

광림교회는 4월 4일 부활주일을 맞아 1부(오전 7시)~5부(오후 4시 30분)까지 본당과 온라인을 통해 부활절 기념예배를 드린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부활절로 철저한 방역 수칙 하에 작년과는 달리 여러 행사가 준비되어 있

다. 광림성도들은 부활절 달걀을 믿지 않는 이웃에게 나누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 또 저녁 예배 시간에는 나사렛 성가대의 작은 부활절 음악예배도 열린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광림의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오늘 3월 28일은 종려주일이다. 종려주일은 수난받기 전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날이다. 또 지난 2월 17일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갈보리기도회>가 40일 동안 매일 새벽 5시와 6시, 벨렐성전과 교육관 2층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주일 6번 제외)이며, 사순절의 절정이 되는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내일부터 4월 3일까지 지켜진다. 고난주간에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피를 흘리신 고통에 동참한다. 하루 한 끼 금식, 미디어 절제, 성경말씀 읽고 묵상하기, 기도생활 등 경건하고 절제된 생활을 한다.

부활의 신앙으로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
 특히 부활절 직전의 금요일(4월 2일)은 성금

요일로 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저녁 8시 <성금요 성찬예배>를 드리며, 성찬식도 거행된다. 성찬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개인별 성찬키트를 이용하며,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성찬키트를 교회에서 미리 받아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다.

최성인 권사(8교구)는 “코로나19로 마음대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없어서 영적 침체기라고 느껴져요. 부활절을 맞아 우리 주변에 드리워진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모두 사라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기쁜 소식들만 전해지길 기도해요”라고 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1-22)

이정순 기자 lilypink60@hanmail.net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로마서 15장 29절)

바울은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큰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소아시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과 함께 우리가 돕자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구제 헌금을 모아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바울에게는 위험이 도사리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의 선교를 시기하여 그를 죽이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자신이 로마에 방문하고 싶으나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을 위해, 무엇보다 자신에게 해를 가하려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로마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사도행전 24장 이후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해 잡혀 공의회의 재판, 나아가 벨릭스와 베스도, 아그립바 왕 그리고 중국에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잘 앞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31절)라며 기도 요청하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다만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 흉년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만을 뜻합니까?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섬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는 자의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 26절에서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연보란 헌금을 의미합니다. 사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 환란과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정하는 것도, 높은 자세를 취하여 애써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깨달았고 그 안에서 매일 새로워지고 감격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희생적으로 뜨겁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섬김은 무엇입니까? 내가 희생하여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무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거저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거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 어려움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



로마서 15장 22~33절

22.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3.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4.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귀기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25.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27.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빛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리라 28.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29.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30. 형제들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

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나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31.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32.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33.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지이다 아멘

과 은혜가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할 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행 20:35).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베풀 때, 주님은 그 삶에 더 풍성한 복을 더해줍니다.

둘째, 기쁜 마음으로 주어야 합니다.

본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하겠다고 말합니다(26-27절).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은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시험 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보상의 심리'입니

다. 내가 헌신한 만큼 보상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상을 바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헌신하십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값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자체로 인해 기뻐하며, 이를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정욕과 욕심에 이끌리어 '보상'을 바라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고, 하나님

의 뜻을 위해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나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이며,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셋째,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야 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은 기쁜 마음과 더불어 감사한 마음에 의한 것입니다. 내게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넉넉하지 못하고 적은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며, 도울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혹여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드린 연보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행한 선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베풀며 선을 행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함이 있는 곳에는 분열이 없습니다. 감사로 섬기는 공동체가 건강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에너지와 역동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도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얼마나 감사가 흘러넘칩니까?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뜨거움, 기쁨, 감사로 섬겼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때로는 그 여건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뜨거운 마음,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며 섬깁시다. 이 섬김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 삶에 더 큰 풍요로움을 더해주시길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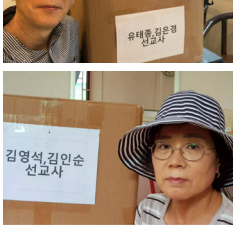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102-2056-5771

캄보디아에서 감사의 편지 전해와

광림교회에서 보낸 물품, 감리교 선교사 39가정과 신학교 등에 전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3차 지역감염으로 확산되어 큰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느슨해진 개인방역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불필요한 외출과 이동 및 종교행사를 금지하고 있어 선교활동도 어렵고,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선교사 가정들은 선교지를 지키기로 결단하고, 믿음과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 때, 광림교회가 캄보디아

를 기억해주시고,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물품들은 감리교 선교사 39가정과 신학교, 캄보디아 감리교회(MCC)에 전달하고 나누었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물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겠습니다.

재작년 캄보디아 한인선교사대회를 통해, 캄보디아와 선교사 가정을 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셨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큰 사랑과 도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보냄 받은 선교사로 이곳에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광림교회에서도 저희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곳에서 광림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캄보디아 선교사 일동



2021년 중보기도 세미나 열려

365일,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중보기도실



<2021년 중보기도 세미나>가 3월 26일, 오전 10시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작년 중보기도세미나는 개최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한 중보기도자에게 개근상 시상 및 중보기도자 임명식을 가졌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코로나19 기간에도 300여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제단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기도자들은 먼저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풍요로운 기도를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중보기도자의 사명 중보기도위원회(위원장: 김도옥 장로는)는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부름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기도하여 응답의 간증이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는 사역이다.

중보기도회는 크게 7개조로 나뉘 하루 한 조씩 2~3명이 한 팀을 이뤄 1주일간 돌아가며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량 기도한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 30분까지는 전도사와 조장이 한 사람씩 돌아가며 철야를 한다. 특히 주일에는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선포되어지는 담임목사 말씀이 대예배실과 유튜브

를 통해 전세게로 중계되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집중하여 기도한다. 김도옥 장로는 “코로나19에도 중보기도자는 더 좋은 출석율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기도의 제단 문설주 인방에 보혈로 덮으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고 했다.

중보기도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교, 신앙, 질병, 사업, 직장, 가정, 자녀, 물질 기타 법적인 문제 등 성도들의 삶의 전반에 관한 기도를 한다. 또 감독님과 담임목사,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도 보필하고, 주일에는 선포되는 말씀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는 본당 1층 중보기도실 앞에 비치된 기도카드를 작성하거나 전화나 팩스로 요청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 존 웨슬리

중보기도 요청 및 문의

Tel: 02-2056-5639 / Fax: 02-2056-5640

☞ 신회경 기자 xijing1970-@naver.com

포토 뉴스



트리니티성서대학원
봄학기 트리니티성서대학원이
본당에서 진행중이다.



갈보리 새벽기도회
사순절 갈보리 새벽기도회가
2월 17일 ~ 4월 3일 까지 진행중이다.



츄즈라이프 / 어번던트라이프
츄즈라이프 / 어번던트라이프가
3월 7일 ~ 5월 23일까지 진행된다.



국제광림비전랜드
2020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담임목사 동정



- 3/17 수요치유의신학
- 3/19 남연회 목사안수예정자교육
- 3/21 종로교회 장로취임예배
남연회청장년신교회장어취임예배
- 3/23 월드비전이사회
- 3/25 나세남프로젝트 1차교육
- 3/26 중보기도세미나
- 3/28 종려주일
광림복지재단이사회
남연회 교회학교회장 취임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내 인생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 처음 광림교회에 등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당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 세 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고등부, 대학부를 다니며 만났던 친구들은 현재 교회 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년시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광림 대학부의 오랜 친구로 지금도 만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대학교 졸업 후 미국 유학과 대기업 생활을 하는 동안은 교회에 거의 나오지 못했고, 그 때는 영적으로 가장 방황했던 시기였다.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딸이 네 살 때,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며 교회에 다시 나와 학생이 아닌 성인으로 속회와 디모데 선교회에 참여했다. 30대 초중반의 어리숙한 부부와 지금은 28살이 되어 대기업 연구소에 다니고 있는 딸을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형과 누나처럼 따뜻하게 보살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다.

2004년에 대학교수가 되었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으며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다.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교육할 때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며 마음의 중심을 잡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었다. 체육대회, 야외예배 등의 교회 행사에 우리는 다같이 즐겁게 참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는 말씀처럼 교회는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곳을 항상 경험한다. 부모님과도 앞으로는 감사와 기도만을 하며 살자고 이야기한다.

지난 여름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많은 고생을 했고, 가을 학기에는 휴직을 하고 강의도 하지 못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다. 병실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했다.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서 병원 생활이 더 불편했다. 지난 6개월여 동안 다른 지인들도 많이 도와주었으나, 가장 의지가 되고 큰 도움이 된 것은 교회와 목사님, 전도사님, 중보기도실, 나를 아는 모든 교인들의 중보기도였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드린다. 본당에서 십자가를 보며 예배드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임을 고백한다. 이제 봄이다. 꽃이 피기 시작한다. 아무리 겨울이 힘들고 길어도 봄은 온다. 우리가 힘든 과정에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 구원의 손길을 주신다. 따뜻한 봄볕에 감사함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소망을 기대해 본다.



김주태 권사 (남선교회총연합회 10선교구연합회장)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부터 단단하게!

<광림 청년부 LBS 봄학기 개강>



광림교회 청년부는 3월 6일(토)부터 5월 22일(토)까지, 12주간 LBS(LFC Bible School)을 진행합니다.

이번 2021년 봄학기 LBS에는 크리스천 베이직(기독교 기초 교리), 톡톡 구약성경(구약 개론), 톡톡 신약성경(신약 개론), 크리스천 코칭, 워십리더 과정 등의 5가지 과목에 현재 64명의 청년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봄학기 LBS는 강의를 신청한 인원에게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여 실시간 온라인으로 교육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광림교회 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비전 찬양팀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진 다음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줌을 이용하여 5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작년 봄학기 이후 1년 만에 재개하는 LBS를 통하여 청년들이 신구약의 말씀과 기초 교리를 배우

으로 신앙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크리스천 코칭을 통하여 크리스천으로서 관계를 맺어가는 지혜를 배우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탁월함을 개발하도록 돕고 있으며, 워십리더 과정은 예배를 배우고, 섬기는 부서마다 예배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베이직에 참여하고 있는 민유빈 자매는 “평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만난 질문들에 대해서는 그저 믿음으로 묻으며 넘어가 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질문을 품고 또 그 해답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3주차 강의까지 참여했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 그저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던 고민과 질문들을 조금씩 깨닫게 되고, 알아가는 점이 기뻐했습니다. 강의를 다 듣고 나면 하나님과도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



을 것이라 확신이 듭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워십리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서준영 형제는 “이번 강의를 통해 영적으로, 음악적으로도 도움을 주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또 다양한 부서에서 사역하는 청년 인도자들과 교제를 통해 여러 가지 관점들을 접하며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남은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되는 워십리더 과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봄학기 LBS를 통하여 광림의 청년들이 믿음의 기반을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일과 영성 세미나 광림청장년부



교회에서 속회모임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과 믿음 생활의 괴리감으로 고민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세상적인 회사의 일은 교회 공동체의 경건한 일과는 다르다고 구분 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왜 일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 ‘일’을 하는데 왜 ‘영성’이 필요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성공이든 돈이든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일에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일과

영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청장년부(위원장: 신범식 권사)에서는 지난 2월부터 우리의 일터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일과 영성’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며 ‘일’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주며, 일을 통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버킷’으로 표현되는 각 단위마다 일, 돈, 관계 등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단순한 강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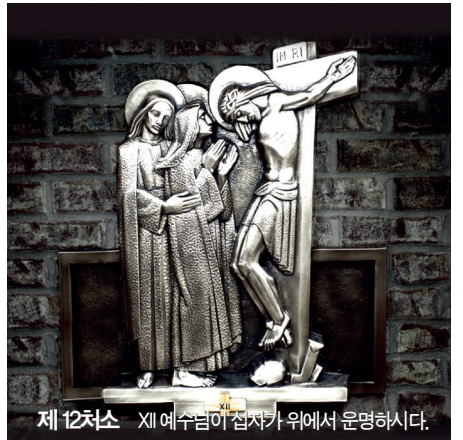
일을 하며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주님 대하듯 하며 예수님 섬기듯 일을 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주님께로 부름 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소명’이 없다면 힘든 노동에 그치지만, 어떠한 일을 하든 그곳에 ‘소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2021년도 교회의 표어는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입니다. 일을 하며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 비범한 신앙(영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일과 영성’에 함께 참여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학용 집사(청장년부)

비아 돌로로사 (VIA DOLOROSA) - 십자가의 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광림수도원 대성전에서 살롬하우스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에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14차소 아이콘 액자가 게시되어 있다. 사순절 기간 중 남은 한 주간(3월 28일~4월 3일)은 고난주간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자심으로 고난의 길을 지나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을 보여 주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구원의 길이고, 우리를 회복케 하신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어려운 때 우리는 광림수도원 기도공원에서 묵상을 통해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상희 기자 shlh616@naver.com



광림수도원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추자길 107 (전화: 031-766-4917)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선교

- 목회현장 -



유용상 목사 (모스크바 광림교회)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거장 톨스토이는 “나 자신의 삶은 물론 다른 사람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혼자 생활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을 하거나 단 한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자 원한다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 자신의 삶은 물론 다른 사람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은 바로 사람을 취하고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불렀고 함께 살아가시며 그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취하고 얻기 위하여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섬김과 순종으로 제자들을 성장시켰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취되어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현재 러시아는 코로나 확진자가 세계 4위의 상황에 놓여있는 국가로 여전히 하루 확진자 약 9,500명, 수도 모스크바는 약 1,400여 명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통제로 종교시설 폐쇄의 상황 가운데서도 모스크바 광림교회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이어갔고,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 줌(zoom) 실시간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 시기에 광림 선한나눔운동을 진행하여 현지 고아원, 알콜중독센터, 난민 시설, 고려인 교회 등을 방문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에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현재도 러시아 상황은 많이 어렵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취하셨던 것처럼, 모스크바 광림교회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있는 그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 사람을 취하고 그로 인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북방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마무리 하며

〈광림남교회 교회학교〉



광림남교회 교회학교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주제로 2021년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백채운 어린이(유년부) :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들을 보지 못해 슬펐지만, 성경학교는 재미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것은 성경에서 보았던 떨기나무 그림을 온라인으로 퀴즈 맞추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에게 믿음이 생긴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탁영인 교사(초등부) : 필사를 통해서 주중 30분씩 선생님들 학생들과 함께 묵상훈련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걱정하였지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수환 학생(중고등부) :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전도사님께서 민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성경에 대해 깊이 알 수 있게 되어 은혜로웠던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많은 은혜를 주고받으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한뼘 더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준구 전도사(광림남교회)

이 때를 위해 부름받은 여선교회

〈광림서교회 여선교회〉



지난 3월 21일(주일) 광림서교회는 연합여선교회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 때를 위해 부름받은 여선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매월 셋째주 월례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선교회는 교회 곳곳에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국내외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3월 연합여선교회모임에

는 본당 여선교회총연합회 임원들이 방문하여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사명과 비전을 세워가는 여선교회로

광림서교회 루디아여선교회장 이광자 권사는 “어려운 시기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광림서교회 여선교회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여선교회총연

합회의 사명과 비전을 세워가는 개체선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선교회총연합회장 이화열 권사는 “작년 한 해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체선교회와 여선교회총연합회의 헌신을 통하여 목표했던 모든 선교와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 여선교회총연합회의 비전 중 하나는 지교회 여선교회의 부흥입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으로 함께하며, 힘을 합하여 코로나19도 이겨내기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여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2021년 광림서교회 여선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많은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아라 전도사(광림서교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광림북교회 꽃꽂이선교회〉



샬롬! 저는 광림북교회 꽃꽂이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옥주 집사입니다. 30년전 잠실 살 때에는 광림교회 본당에서, 상계동 살 때에는 상계광림교회를 다녔습니다. 세월이 흘러 의정부로 왔는데, 이렇게 광림북교회가

생겨 광림교회와는 뗄 수 없는 인연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옛날 김선도 감독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광림북교회로 걸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꽃꽂이 봉사라는 귀한 달란트를 허락해주셨고, 부족하지만 매주일 강단을 정성을 다해 장식하고 있습니다.

2021년 청지기 주일, 광림북교회에 꽃꽂이선교회가 정식으로 세워지면서 회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젊고 예쁜 집사님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꽃꽂이 봉사의 시간은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치유

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모든 작업이 마무리된 후 강단의 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하셨구나’ 감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수고에 더욱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매주 토요일 설레는 마음으로 꽃꽂이의 시간을 기다리며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북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해주시는 김선도 감독님, 김정석 담임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북교회 꽃꽂이 선교회는 계속해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며 선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옥주 집사(광림북교회)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광림실업인선교회>



2019년 광림가족 한마음 걷기 대회

따뜻한 밥, 사랑, 정이 있는 곳. 그곳에 가면 힘들었던 마음이 무장해제 된다. 광림실업인선교회 이야기다. 광림실업인선교회(위원장: 권후원 장로)는 봉사로 모인 다른 선교회와는 달리 받은 은혜를 품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주신 소명인 기업을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회다. 주일 3부 예배 후 선교회원들의 걸음은 사회봉사관 3층 실업인선교회 사무실로 향한다. 문밖까지 들리는 반가운 인사는 한 주간의 피로를 눈 녹듯 사라지게 하고 삶의 최전선에서 만난 치열했던 무용담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음식을 함께 할 순 없지만 서로를 향한 눈빛만으로도 큰 위로를 얻는다. 또 사업상 겪는 많은 문제 앞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통해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비즈니스와 신앙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깨달으며 함께 기도한다.

광림실업인선교회는

1981년 4월 12일 '빌레몬실업인선교회' 이름으로 창립되었으며 올해로 40주년을 맞는다. 1991년 '빌레몬협동화선교총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했고, 1995년 상담업무(법률, 세무 등)를 분리하여 상담선교회를 탄생시켰으며 지금의 명칭 '실업인선교회'로 명명했다. 초대회장으로 김광호 장로가 역임했으며 2021년 제13대 회장 권후원 장로가 취임하여

회장단과 10개 분과위원회, 자문의원, 최고경영자, 임원, 전문직 종사자로 구성된 100여명의 회원이 헌신하고 있다.

기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

실업인선교회는 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선교 사업에 소명 받은 기독교 실업인으로서 하나님께 경영을 위임받은 각자의 기업을 성장시키고, 각 회원들의 사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전파에 헌신 봉사한다. 담임목사의 국내의 선교사역을 지원하고 광림교회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는데 선교회의 목적이 있다.

“
기업을 통해
받은 축복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헌신하는
믿음 공동체
”

성도들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 마련

실업인선교회는 회원들의 영성훈련과 교육,

선교, 교회행사, 봉사 등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한다. 권후원 장로는 매일 아침 단톡방에 말씀을 올리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며 주신 기업의 주인임을 고백한다. 회원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실시간 올라오는 사업상 기도제목과 릴레이 중보기도를 통해 회원들의 기쁨과 슬픔, 어려운 문제에 함께한다. CEO 특강을 통해 기업의 소식을 전하며 경영자로서의 태도와 의지를 점검한다. 사업장 심방과 회원들의 경조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사랑이 넘치는 선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월 1회 부목사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봄가을 국내영성수련회를 통해 믿음의 재충전 시간을 갖는다.



격년으로 <광림가족 한마음 걷기 대회>와 <전교인 한마음 등산대회>를 개최하여 광림의 성도들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

하고 있으며 <베트남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열린 음악회>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베트남 광림미션센터' 건립에 지원하기도 했다.

매월 외국인제자센터와 심천광림교회, 사랑부, 뉴스레터 등을 후원하며 1984년부터 매년 12월에는 <교역자 감사행사>를 열어 한해를 마감하며 수고하신 교역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또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등산, 골프, 중국어교실, 오카리나교실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새로운 도약을 향해

2021년 실업인선교회 표어는 '비범한 신앙으로 섬기며 세워가는 선교회'다. 권후원 장로는 "창립 40주년을 맞는 실업인선교회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첫째 모이기에 힘쓰며, 둘째 영성을 삶에 적용하여 신앙과 삶이 일치되고, 셋째 건전한 경영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과 넷째 담임목사님의 선교사역에 온전히 쓰임 받으며, 다섯째 교회내의 여러 지체들과 협력하고 나누고, 여섯째 많은 교인이 가입하고자 하는 선교회가 되도록 거듭나겠다고 했다.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김선도 감독의 아흔 인생과 ‘장천 울림’ 목회신학 이야기

1 김영현 (은평감리교회 원로목사)



지난 2월 25일 김선도 감독님의 도서 헌정식 ‘장천의 울림’이 사회봉사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목사 김선도>는 한 언론사 종교기자의 제안으로 최이우 목사(종교교회 담임)가 중심이 되어 편찬한 것으로 제자, 해외지인, 가족 등 총 15명의 집필진들이 김선도 감독님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여기에 쓰인 글들은 과거를 추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미래를 바라보는 탁월한 안목을 키우는 자리로 이끌어준다. 이러한 김선도 감독님의 삶과 목회,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기에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공감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필진들의 글을 요약 발췌하여 연재한다.

“

첫째는 아래를 보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둘째는 안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밖을 보라.

셋째는 뒤를 바라보고 주저하지 말고, 앞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라

”

김선도 목사와의 인연은 60여 년 전, 젊은 군목으로 내가 사는 가난한 농촌 마을에 셋방을 얻어 이사를 오실 때 부터다. 당시 공군 중위 정도면 도시 주변에 번듯한 양옥집 방을 얻어 살 수도 있었는데, 교역자도 모실 수 없는 미자립 감리교회를 보고 사역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해서 농가에 셋방을 얻어 들어오신 것이다. 군목은 장병들의 신앙을 지도하기만 하면 되었지만 주일이면 일찍 공군부대 기지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한 다음 지프차를 타고 동네 시골교회(영천교회)로 달려와서 예배를 인도하였다.

농촌계몽과 복음전파

그는 여남은 명의 촌로들을 앓혀 놓고 회당을 말하였고 뜻도 잘 모르는 그들에게 비전을 가지라고 하였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교회에 나오라고 방문 전도를 했고, 농부들과 같이 모내기를 하거나 가을 추수를 거들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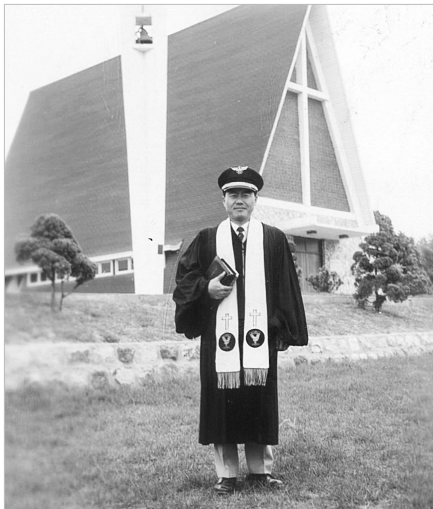
했다. 농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해 김용기 장로가 운영하는 가난한 농군학교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고 와서는 농부들에게 구체적인 농사법을 가르쳤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젊은 군목의 열정적인 설교는 내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사방이 산으로 막힌 가난한 마을, 그 고인 하늘 아래서 맴도는 소년으로 있던 나에게 막힌 산을 뚫고 새로운 소망의 세계로 안내하였다.

‘나도 김선도 목사와 같은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감리교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우리 어머니에게 축하 전화를 거시고, 나의 입학금 마련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 나중에 내가 미국 유학을 가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부흥회로 받은 사례비 전액과 함께 건강을 챙기라며 꿀을 넣어 만든 약재도 주셨다.

영적개발을 위해 유학길 올라

김선도 목사에게는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열정이 또 하나 있는데 영적이고 지적인 개발을 위하여 공부하고 배우는 일을 찾아 달려간다는 것이다. 1960년대에 그는 더 경험을 넓힐 수 있는 길이 유학뿐이라고 생각하여 미국 웨슬리신학대학교 총장이 한국을 찾아 왔을 때 미국유학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그 총장은 귀국 후에 특별 입학허가서와



▲공군기술교육단 예배당 앞 김선도 군목

3년간의 장학금 증서를 보내 주었다. 그렇지만 비행기 값을 비롯한 경비가 문제였는데 이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면서 미 공군본부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본부에서 왕복 비행기표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동안 국내든 국외든 공군 수송기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항공권을 보내왔다고 한다.

공부를 마치고 다시 공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인 1971년, 을지로 6가쪽에 위치한 100명에서 150명이 모이는 감리교회인 광림교회에서 그를 담임목사로 청빙하였다. 교회 위치가 광희동과 쌍림동 지역이라 광림교회라 붙여진 것인데 김선도 목사는 이를 성경적 언어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로 재해석하였다. 이러한 이름은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동력을 갖는 명칭이 되어 성령의 불길이 광림교회 제단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강남에서 교회성장을 일구다

불과 3~4년 사이에 주일이면 천여 명 이상이 모여들어 교회시설의 수용한계를 넘어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구 도심지역을 벗어나서 새롭게 도시가 조성되는 곳으로 눈길을 돌린 그는 부와 권력이 밀려드는 강남에는 다른 차원의 비전이 있다고 보았다. 바로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들의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는 비전이였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성경적 비전을 갖게 해서 나라와 사회를 바로 이끌게 해야 한다는 안목을 갖게 된 것이다. 아울러 화려한 겉모습 뒤에 존재하는 경쟁과 갈등에서 비롯되는 상처들, 빛을 잃고 방황하는 세력들, 낙오자로 전락하여 포기하는 사람들의 뒤안길을 보고 있었다. 강남지역에는 주류가 된 사람들만 몰려오는 것이 아니

라 상처받은 사람들,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함께 모였다. 광림교회는 그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는 로버트 솔러 목사와 수정교회를 교회의 롤모델로 삼고 교회성장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놀란 빈센트 필 박사의 긍정적 사고를 목회의 중심에 놓고 대형교회로 성장시키는 로버트 솔러 목사와 교류하며 교회성장을 주도해 나갔다. 광림교회의 긍정적 사고와 치유의 사역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비전이 되었다. 80~90년대를 넘기면서 김선도 목사의 설교를 요약하면 첫째는 아래를 보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둘째는 안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밖을 보라. 셋째는 뒤를 바라보고 주저하지 말고, 앞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이었다. ‘믿음 안에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이 평생 그의 설교 주제였다.

엄격하지만 정이 많은 성품

인간 김선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엄격하고 강직한 평안도 토박이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사는 습관 때문에 다름 사람에게 풍기는 분위기가 엄하고 사랑이 없이 무섭고 두려운 모습이다. 그러나 좀 더 가까이에서 그 진면목을 들여다보면 깊고 뜨거운 정이 끓는 사람이다. 상처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이다.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자상한 표현을 절제하는 것뿐이지 그의 본성은 ‘치유자’이다. 그것을 체현한 사람은 끝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김선도 목사는 늘 다른 사람들보다 시대를 앞서간다. 성직자라는 직임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선다. 부디 김선도 목사께서 만수무강하시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드리시기를 기도한다.

정리: 이득섭기자 7sublee@naver.com



김선도 감독님께 책을 헌정하는 김영현 감독

